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The Introduction of New wooden tablets in Wolseong Moat

저자 (Authors)	전경호 Jeon, Kyung-hyo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0 , 2018.6, 61-78(18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0 , 2018.6, 61-78(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7803
APA Style	전경호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문자, 20, 61-7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1: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전경효**

- I. 머리말
- II. 신 출토 월성 해자 목서 목간의 형태
- III. 신 출토 월성 해자 목서 목간의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주 월성 해자(垓子) 발굴 조사를 통해 57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글자가 있는 목간은 7점이었다. 이들 목간에는 제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비롯하여 관직 이름이나 문서 작성자 등 새로운 표현이 많이 등장했다. 또한 기존에 발견된 금석문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관직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변화가 마무리된 시점과 목간의 제작 시점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데, 그 시점을 6세기 중반 이후로 보는 통설이 옳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러한 점들은 목간이 문헌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새롭게 출토된 목간은 과제도 함께 남겼다. 이번에 등장한 관직 이름과 기존에 알려진 관직 이름은 비슷한데, 두 명칭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목간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 자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간 연구는 고고학과 역사학 연구 방법론의 조화가 필요하다.

▶ **핵심어:** 6세기, 신라, 월성 해자, 목간, 금석문

* 본고는 2017년 10월 19일~20일 열린 한국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자료집인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 의례와 월성해자 목간』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경주 월성은 신라의 왕궁이 자리 잡았던 곳이다. 신라는 한 번도 천도하지 않았지만, 왕경 내에서 왕이 거주하는 금성에서 월성으로, 다시 명활성을 거쳐 월성으로 이동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월성이었다. 그 결과 월성 주위에 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과 해자 등이 설치되었고, 이에 그 시설물들은 여러 번 보수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흔적의 양상과 시기는 토층뿐만 아니라 고고학 유물인 기와, 토기 등으로 밝혀낼 수 있다. 특히 해자는 기와와 토기 등은 물론 목간이라는 문자 자료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구이다.

목간은 1985년부터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되기 시작했다. 출토 수량은 목간 및 목간 종류로 추정되는 것까지 합쳐서 130점이며¹⁾ 그 가운데 먹의 흔적이 있는 목간은 25점이다.²⁾ 당시 출토된 월성 해자 목간은 신라의 문서 행정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신라의 문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다.³⁾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새롭게 출토된 글자가 있는 목간 7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기존의 자료에 보이지 않았던 표현이나 향후 심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출토된 목간의 기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II. 신 출토 월성 해자 묵서 목간의 형태

2015년 말부터 진행된 경주 월성 해자 조사를 통해 전체 목간 및 목간으로 추정되는 유물 57점이 출토되었다. 목간은 다 구역 1호 해자 중에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수혈해자 내부 V층(필층)에서만 나왔다. V층에서는 짧은 굽다리 접시(短脚高杯)와 단판연화문수막새(單瓣蓮花紋圓瓦當) 등의 유물이 같이 나오는데, 이들 유물의 편년은 대략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목간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 및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들 목간 가운데 묵서가 있는 것은 7점인데, 그 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069(2016) 목간은 전체적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A면의 표면은 세로로 나뭇결이 있는데 글자는 나뭇결에 걸쳐서 존재한다. A면⁵⁾의 왼쪽 아랫 부분이 휘어졌고, 오른쪽 아랫 부분은

1) 國立慶州文化財硏究, 2006, 『月城孩子 發掘調査 報告書Ⅱ -고찰-』,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p.137. 이 보고서에서 목간 번호는 105호까지 매겨졌는데, 50호 목간은 빠져 있으므로 실제 보고된 목간은 104점이다.

2) 國立慶州文化財硏究, 2006, 앞의 보고서, pp.138~152.

3) 홍기승, 2013,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목간과 문자』 10.

4) 목간의 출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재, 2017, 『경주 월성 해자 조사 성과와 목간』,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역례와 월성해자 목간』, 한국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39-44 참조.

5) 앞으로 서술할 A, B, C, D면 등은 임시적인 구분 방법이다.

표 2. 신 출토 목서 목간 목록

연번	유물번호 ⁶⁾	제원 (길이×너비×두께, 단위 : cm)	형태	파손 위치	수종	비고
1	임069(2016)	24.7×5.1×1.2	양면 목간	下	소나무	
2	임023(2016)	4.3×2.6×0.6	목간 조각	上·下 左·右	소나무	
3	임392(2016)	19.2×3.9×0.8	양면 목간	上 下(일부)	소나무	꼬리표 목간
4	임418(2016)	25.9×2.5×2.2	사면 목간	上, 下	소나무	
5	임001(2017)	15×2.1×2.2	사면 목간	下	소나무	
6	임071(2017)	22.9×2.5×0.5	양면 목간	없음	소나무	꼬리표 목간
7	임098(2017)	12.7×1.7×1.7	사면목간	없음	소나무	꼬리표 목간

파손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형태는 아니며 원래의 형태는 아래쪽으로 더 길었을 것이다. 휘어진 부분은 원래 나무 모양이 그런 것인지 흙의 압력(土壓)에 의해 변형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B면의 글자가 면의 굴곡을 따라 휘어져 있으므로 원래 형태가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다. 파손된 부분은 잘려진 면이 깨끗한데, 파손 시점은 글자를 쓴 이후일 것이다. 그 부분에 글자의 획 일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손 부위 위쪽에 표면이 갈라진 흔적이 보인다. B면은 A면보다 뚜렷한 나뭇결이 보이며 오른쪽 아래 끝부분에 글자의 일부 획이 보인다. 그러므로 임069(2016) 목간은 좌우가 완전한 형태이며 위아래 중에서 아래쪽이 파손된 불완전한 형태의 목간이다.



그림 2. 임023(2016) 목간 B면

임023(2016) 목간은 조각 목간이다. 이 자체가 하나의 목간일 수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에 고르지 않은 면이 보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며, B면 적외선 사진 아래쪽에 일부 글자의 획이 있다. 좌우로도 완전한 형태로 보기 어려운데, 오른쪽에 끝부분에 글자의 일부 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023(2016) 목간은 좌우가 파손된 불완전한 형태의 목간 조각이다.



그림 1. 임069(2016) 목간 A면

6) 유물 번호는 임시로 부여된 번호이며, 향후 정식 보고서가 간행될 경우 새롭게 부여될 예정이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표기하고, 괄호 안의 숫자를 통해 출토 연도를 나타냈다.

임392(2016) 목간은 꼬리표 형태의 목간이며, 표면을 보면 중간 부분이 튀어나와 약간 볼록한 모습이다. A면 윗부분에 둥근 형태로 파손된 흔적이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왼쪽 윗부분은 분리되어 있다. 또한 오른쪽 아래 꼬리 부분도 떨어져 나갔다. 한편 A면 표면, 특히 1열의 글자가 있는 부분을 편평하게 가공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중간 아래쪽에 좌우로 파인 형태를 띤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이 부분에 쓰인 글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B면은 나뭇결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A면보다 매끈한 편이다. 결국 임392(2016) 목간은 위아래가 파손된 불완전한 형태의 꼬리표 목간이다.



그림 3. 임392(2016) 목간 A면



그림 4. 임418(2016) 목간 A면

임418(2016) 목간은 길쭉한 사면 목간이다. A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파손된 흔적이 있다. 또한 표면은 가운데 부분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중간 부분까지 이어지고 왼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서 목간 표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갈라진 부분이 넓어졌다. A면의 갈라진 흔적은 글자가 기록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적외선 사진으로 보면 글자의 획이 갈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목간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문서 목간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상태가 좋은 나무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 표면이 매끈한 나무에 글자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갈라졌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목간이 버려진 시점과 그것이 물이나 진흙층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시점 사이에 나뭇결이 갈라질 정도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즉 수분이 많은 곳에서 나무가 쉽게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목간이 용도를 다하고 곧바로 재활용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일정 기간 모아두었거나, 곧바로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건조한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다.

B면에는 중간 부분에 A면의 파손된 부분이 이어져 있다. 나뭇결이 보이기는 하지만 A면에 비해서 매끈한 편이다. C면도 역시 나뭇결이 있으며 위에서 갈라진 부분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다. D면은 B면과 마찬가지로 나뭇결이 보이지만 표면이 매끈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면 임418(2016) 목간은 위아래가 파손된 형태의 사면 목간이다.

임001(2017) 목간은 막대형 목간으로 윗부분은 완전한 형태이고 아랫부분은 파손되었다. A면은 오른쪽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며 왼쪽은 나뭇결과 함

깨 벌레에 의해 표면이 훼손된 흔적이 있다. B면은 세로로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아마도 글자를 쓰기 전에 가공한 흔적일 것이다. 이 밖에 왼쪽에는 갈라진 흔적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나뭇결이 복잡하다. C면은 오른쪽에 치우쳐서 굽은 나뭇결이 있다. 여기는 표면을 다듬은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휘어져 있고, 적외선 사진에 나타난 글자가 이 부분을 넘고 있어 자연적으로 생긴 굴곡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C면 왼쪽 아래에 갈라진 흔적과 구멍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나무의 웅이가 있다. 구멍은 나무가 갈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웅이는 목간이 잘린 부분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근이 힘에 취약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D면은 나뭇결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A면 가운데 파손 부위가 D면에도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임001(2017) 목간은 아랫 부분이 파손된 형태의 막대형 목간이다.

임071(2017) 목간은 꼬리표 목간이며, 파손이 거의 없는 완전한 형태로 여겨진다. 다만 목간 옆면을 보면 A면이 휘어져 불룩하고 B면은 들어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흙 압력에 의해 비뚤된 것으로 추정된



그림 5. 임001(2017)
목간 A면



그림 6. 임071(2017)
목간 A면



그림 7. 임098(2017)
목간 A면

다. A면은 윗부분에 나뭇결이 보이며 중간 부분에서 아래쪽까지는 표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다. 아마도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바깥쪽을 비스듬히 깎아 그 단면이 사다리꼴 형태(△)가 되었다. 적외선 사진으로 보면 글자가 가운데 매끈한 면에 있다. B면은 A면과 달리 평평하며, 왼쪽이 약간 휘어진 형태이고, 위쪽에 얼룩이 있으며, 왼쪽에 나무가 갈려져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임071(2017) 목간은 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휘어진 꼬리표 목간이다.

임098(2017) 목간은 사면 목간이면서 동시에 꼬리표 목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이다. A면은 전체적으로 표면에 얼룩이 있으며 아랫부분이 오른쪽으로 약간 휘면서 뒤틀렸기 때문에 D면이 조금 보인다. 또한 매듭을 묶는 부분 위쪽에 나무가 갈라진 곳이 있다. B면은 중간부터 아래까지 얼룩과 함께 나뭇결이 보인다. C면은 윗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는데 특히 왼쪽에 튀어나온 나뭇결이 있다. D면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얼룩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 선명한 나뭇결이 보인다. 따라서 임098(2017) 목간은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꼬리표의 역할을 하던 사면 목간이다.

지금까지 2016년~2017년에 걸쳐 출토된 목간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7점의 목간은 공통적으로 구멍이 없었으며, 그 형태는 양면 목간, 조각 목간, 꼬리표 목간, 사면 목간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출토되었던 목간 및 목간류 유물 130점 가운데 약 36점 정도 차지하던 단면이 원형인 목간은 이번에만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번 목간이 예전 조사 당시의 지점보다 南川 쪽으로 더 내려간 지점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간의 출토 지점 차이에 따른 특징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무게나 형태와 같은 목간 자체의 특성이나 목간이 폐기될 당시의 환경, 즉 목간 폐기 장소나 폐기 주변 건물의 성격, 폐기 주체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III. 신 출토 월성 해자 묵서 목간의 특징

최근 출토된 월성 해자 목간은 기존의 문헌이나 금석문에 나타난 표현과 함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목간의 글자 가운데 판독이 거의 확실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문헌이나 금석문에 나타난 사례와 비교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목간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1. 임069(2016) 목간

임069(2016) 목간은 양면에 글자가 있는데,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A) □□□……………

7) 지금부터 제시되는 판독안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목간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古拿村_{行兮}豕_豕 …………… 書_口⁸⁾(파손)
 □只□ …………… 谷□

(B) 功以受汲荷四煞功廿二以八十四人越菘山走入葱(파손)

受一伐代成年往留丙午年干支受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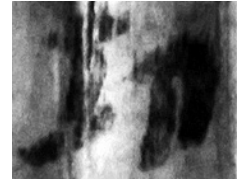


그림 8. 임069(2016) 목간의 '功'



그림 9. 임069(2016) 목간의 '煞'

A면에서는 村이라는 글자가 드러난다. B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글자가 등장하는데 功, 煞, 菘山, 一伐, 丙午年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병오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석문이나 문헌에 등장하며, 병오년은 월성 해자 목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완전한 형태의 干支이다.

功은 6세기 금석문 가운데 525년(법흥왕 12년)에 세워진 울주천전리각석의 食多煞作功人, 578년(진지왕 3년)에 세워진 대구무술명오작비의 功夫, 798년(원성왕 14년)에 새겨진 영천칭제비 貞元銘의 法功夫 등의 사례가 있다. 금석문에 나타나는 功의 의미로 보아 목간의 功은 특정한 업무나 노동을 의미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10. 임069(2016) 목간의 '菘山'

煞은 殺의 異體字인데, 503년(지증왕 4년)에 세워진 영일냉수리신라비의 煞牛(소를 잡다), 煞斑牛(얼룩소를 잡다), 앞에서 언급한 울주천전리각석의 食多煞作功人 등의 사례가 보인다. 이러한 사례로 추정한다면 목간의 煞은 사람이나 동물을 죽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菘山은 『三國史記』新羅本紀와 地理志, 列傳 등에 등장한다. 신라본기에는 菘山城⁹⁾, 지리지에는 菘山縣¹⁰⁾, 열전에는 菘山¹¹⁾이라 나오는데 그중에 산산현과 산산은 함경남도 원산으로 추정되며¹²⁾ 산산성은 신라와 백제의 국경에 있었던 성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조선시대 자료인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등의 지리서에 의하면 함경도 덕원, 평안도 상원, 전라도 화순, 경상도 김해, 황해도 황주와 봉산 등 여러 곳에서 菘山이 확인된다. 그런데 『三國史記』地理志의 산산현은 경덕왕대에 바뀐 지명이었으므로,

8) 입 구(口) 윗부분 존재.

9) 봄 2월에 백제가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智王 4年).

10) 산산현은 본래 고구려의 매시달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三國史記』卷35 地理2 朔州).

11) 풀 뿌리를 캐서 씹어 먹으며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三國史記』卷48 列傳 8 都彌).

12)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291 및 p.832.



그림 11. 임069(2016) 목간의 '伐'

조선시대 자료와 마찬가지로 후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¹³⁾ 그러므로 대략 목간의 산산과 신라본기의 산산성 ≠ 지리지의 산산현 ≒ 조선시대의 산산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목간의 산산과 산산성의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

一伐은 신라가 지방 유력자에게 부여한 外位이다. 전체 11개의 관등 가운데 8번째에 위치한다. 674년에 외위를 폐지할 때 17등급의 京位 가운데 14번째인 吉次(또는 吉士)에 견주어 있다.¹⁴⁾ 일벌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217년의 기록에 등장한다.¹⁵⁾ 다만 여기서 일벌은 사람 이름인지 관등인지 논란이 있다.¹⁶⁾ 한편 50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중성리신라비에는 壹伐로 표기되었다. 이 밖에 남산신성비 제9비에는 一伐로 표기되었으며, 목간과 같이 一과 伐이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丙午年은 목간의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간지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해자 목간의 연대 연구 성과를 감안한다면 526년(법흥왕 13년) 또는 586년(진평왕 8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병오년이라는 표현 자체는 월성 해자 목간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완전한 형태의 간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존에 출토된 20호 목간에서 '(파손)子年'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앞 글자가 파손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시점을 알 수 없었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은 완전한 형태의 간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 목간의 정확한 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세기 중반~7세기 중반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월성 해자 목간 제작 연대 연구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림 12. 임069(2016) 목간의 '丙午年'



그림 13. 해자 20호 목간의 간지

2. 임023(2016) 목간

임023(2016) 목간은 목간 조각인데,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박대재, 2007, 『三國史記』 都彌傳의 世界 - 2세기 백제사회의 계층분화와 관련하여 -, 『先史와 古代』 27, pp.239~240.

14)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 下 外官.

15) 제10대 나해왕이 즉위한지 17년인 임진(217년)에 보라국, 고자국, 사물국 등 8나라가 힘을 합쳐 변경을 침범했다. 왕이 태자 나옴과 장군 일벌 등에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했다(『三國遺事』 卷5 避隱 第8 勿稽子).

16) 정구복 외, 2012, 앞의 책, p.598.

(A)

글자 없음

(B)

盛□¹⁷⁾(파손)

A면에는 글자가 없으며, B면에는 성(盛)과 오른쪽과 아래쪽에 일부 글자의 획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목간은 적어도 오른쪽과 아래쪽이 파손된 목간 조각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글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림 14. 임023(2016) 목간의 '盛'

3. 임392(2016) 목간

임392(2016) 목간은 꼬리표 목간으로 A면에만 글자가 있는데,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前¹⁸⁾

(파손)□¹⁹⁾小²⁰⁾舍²⁰⁾ 敬呼白²¹⁾遣 居生小烏²²⁾送□□

宿(官(?))二言之 此二□²³⁾ 官言在

(B)

글자 없음

그 가운데 小舍, 前, 白遣, 居生 小烏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관등, 내용 중에 추가한 표현, 이두, 인명과 관등이다. 특히 관등의 표기법을 통해서 목간의 대략적인 제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392(2016) 목간은 중요한 목간이라 할 수 있다.

小舍는 신라 17관등 가운데 13등에 위치하며, 舍知의 다른 이름이 소사였다고 한다.²⁴⁾ 소사의 표기법

17) 일부 글자 보임.

18) 小舍와 敬 사이에 추가(즉, 빠진 글자를 이후에 넣기 위한)한다는 의미에서 열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음.

19) 칼 도(刀) 일부분 보임.

20) 小舍는 서로 붙어 있는 형태(合字).

21) 기존의 꼬리표 목간에 쓰여진 글자로 추정됨.

22) 小烏는 서로 붙어 있는 형태(合字)

23) 確일 가능성 있음.

24)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 上.



그림 15. 임392(2016) 목간의 '小舍'

은 6세기 금석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524년(법흥왕 11년)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는 小舍帝智, 536년(법흥왕 23년)에 새겨진 영천청제비 병진명에는 小舍第, 568년(진흥왕 29년)에 건립된 마운령진흥왕순수비와 황초령진흥왕순수비와 591년에 세워진 경주남산신성비 제2비에는 小舍로 나온다. 즉 536년~568년 사이 소사의 표기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목간의 소사 표기법으로 보아 임392(2016) 목간은 536년 이후에 제작된²⁵⁾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前은 다른 글자와 열을 달리하고 있으며, 표면을 다듬은 부분과 다듬지 않은 경계 부분에 걸쳐 있다. 이 글자는 왼쪽 열의 글자를 쓴 후 추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목간의 내용을 쓴 사람은 다듬어진 곳에 글을 썼지만,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을 달리했을 것이다. 즉 小舍라는 관등 뒤에 前을 추가하여 목간의 수신자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前은 목간 내용의 수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목간의 용도는 그 형태로 보아 처음에는 물품의 꼬리표였지만 그 용도가 끝난 이후에는 글자를 연습하기 위한(習書) 용도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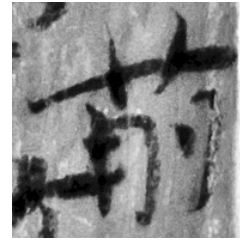


그림 16. 임329 목간의 '前'

白遣은 이두로 추정된다. 즉 遣과 居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두의 畵고(사뢰고, 아뢰고)로 볼 수 있다.²⁶⁾ 사실 白은 획이 흐리지만 遣은 敬과 비슷하거나 커 보인다. 목간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특정인에게 어떤 사항을 말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白遣은 특정인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유달리 크게 썼을 것이다. 목간 형태상으로 볼 때 白遣이라는 표현을 전후하여 그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졌는데, 목간의 핵심 내용을 이 부분에 쓰려 했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白遣이 이두가 맞다면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출현한 이두의 사례를²⁷⁾ 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小烏는 신라 17관등 가운데 16등에 위치한 관등이며, 다른 이름은 小烏知였다고 한다.²⁸⁾ 小舍와 마찬가지로 울진봉평신라비에서는 小烏帝智, 영천청제비 병진명에는 小烏第라고 나타나는데,



그림 17. 임392(2016) 목간의 '白遣'



그림 18. 임392(2016) 목간의 '小烏'

25) 540년~550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신라적성비에는 大舍가 등장한다. 大舍의 표기 변화도 소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사 표기법 변화 시점의 하한은 540년이나 550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26) 윤선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27) 월성 해자 2호 목간 내용 가운데 使內, 在, 之, 中, 白 등을 이두로 보는 견해가 있다.

28)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 上.

동일한 병진명에서는 小鳥一支로도²⁹⁾ 나타난다. 또한 591년에 건립된 경주남산신성비 제3비에는 小鳥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小鳥의 표기 방식의 변화도 소솨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목간의 제작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4. 임418(2016) 목간

임418(2016) 목간은 사면 목간으로, 모든 면에 글자가 있다. 그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典中大等赴告沙喙及伐漸典前
- (B) 阿尺山口舟口至口慎白口口
- (C) 急陞爲在之
- (D) 文人周公智吉士³⁰⁾

이 목간에도 직명, 사람 이름, 관등 등이 나오는데, A면에 典中大等, 及伐漸典, D면에 文人, 周公智, 吉士 그리고 가운데 점(·)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典中大等は 『三國史記』 職官志나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직명이다.³¹⁾ 다만 기존에 출토된 월성 해자 12호 목간에 나오는 典太等과³²⁾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것은 추정일 뿐이며 향후 진전된 연구 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及伐漸典도 표기 방식 자체로만 보면 새로운 직명이다. 하지만 568년(진흥왕 29년)에 건립된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에서 행차 수행자 명단에 나오는 及伐斬典과 동일한 직책으로 여겨지는데, 이 직명의 구체적인 임무는 알 수 없으나 近侍職으로 생각된다.³³⁾ 신라시대의 정확한 한자 발음을 알 수 없지만 漸과 斬이 비슷한 발음이었기 때문에 직명에 동일한 한자를 섞어서 쓴 것



그림 19. 임418(2016) 목간



그림 20. 월성 해자 12호 목간의 '典太等'

29) 판독이 정확하다면 일지(一支)는 제(第), 제(帝)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단어로 추정할 수 있다(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主 韓國古代金石文』 2 신라1·가야면,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 28).

30) 가운데 점.

31) 이것은 典中大等으로 붙여서 읽을 수도 있지만 띄어 읽기에 따라서 典中/大等, 典/中大等 등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32) 典太等は 원래 국가의 재정을 맡았던 稟主의 우두머리였으며, 565년(진흥왕 26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품주가 집사부로 바뀔 때 中侍 아래의 차관직으로 밀려났다.

3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p.95.



그림 21. 임418(2016) 목간의 '及伐漸典'



그림 22.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의 '及伐漸典'



그림 23. 임418(2016) 목간의 '文人'

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及伐漸典 뒤에 나오는 前은 임392(2016) 목간의 前과 마찬가지로 목간 내용의 수신자를 분명히 하고자 한 표현이다.

文人은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사람,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 문관의 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

진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에 文士라는 집단이 나오는데³⁴⁾ 역사책을 편찬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文士라는 표현 자체가 뒷날의 사실이 소급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보다 앞서 법흥왕대에 건립된 울진봉평

신라비에는 書人, 즉 글을 지은 사람으로 추정되는³⁵⁾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이미 등장한다. 그리고 목간에 등장하는 文人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본다면 6세기 중반 무렵 文士로 불리는 집단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6세기 중반 신라에서는 문인이나 문사로 불리면서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역사서를 편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원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周公智는 周公이라는 이름과 智라는 존칭으로 나눌 수 있다. 주공은 중국 고대 국가인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었으며, 조카인 成王을 대신하여 섭정하면서 문물제도를 정비하여 유학자들이 聖人으로서 받드는 인물이다. 물론 주공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람 이름이 아니지만, 목간에서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6세기 무렵 신라인들의 이름 가운데 중국의 유명인이나 유학과 관계있는 이름을 본뜬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즉 金后稷, 金庾信, 金春秋 등의 사례가 있다. 김후직은 진평왕대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중국 주나라의 시조가 邵라는 땅에 봉해지고 불린 이름인 后稷과³⁶⁾ 같다. 김춘추는 공자가 엮었다고 전해지는 春秋라는 역사서에서 따온 이름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김유



그림 24. 임418(2016) 목간의 '周公智'

34) 7월에 이찬 이사부가 말하기를 “國史라는 것은 君臣의 선악을 기록하여 (중략), 왕이 깊이 느끼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國史를 편찬하게 했다(『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6年).

3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p.20, 비의 내용 중에 『論語』 八佾篇의 獲罪於天: 하늘에 죄를 짓다)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글을 지은 書人이 논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6) 『史記』 卷4 周本紀.

신의 이름은 북주(北周, 557년~581년) 사람이면서 詩文으로 유명했던 庾信의 이름을 참고해서 지었다고³⁷⁾ 전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배층 안에서 유학이 확산되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³⁸⁾ 이와 더불어 智는 이름 뒤에 붙는 존칭으로, 6세기 금석문에 많이 등장한다. 이 밖에 『일본서기』에서는 이사부를 伊叱夫禮智라고 했으며,³⁹⁾ 김춘추를 春秋智라고 했다.⁴⁰⁾ 따라서 周公이라는 이름과 智라는 존칭은 6세기 무렵 신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그림 25. 임418(2016) 목간의 '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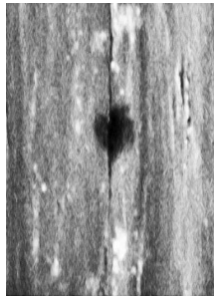


그림 26. 임418(2016) 목간의 '점(·)'

吉士는 신라 17관동 가운데 14등에 위치하며 稽知 또는 吉次라고도 했다.⁴¹⁾ 울진봉평신라비에는 吉之智, 568년(진흥왕 29년)에 건립된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에는 吉之로 나온다. 그리고 591년(진평왕 13년)에 건립된 경주남산신성비 제3비에는 吉士로 표현되었다. 비록 일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568년 이후 길사를 가리키는 표현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석문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목간의 吉士라는 표현은 568년 이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吉士로 나온다. 그리고 591년(진평왕 13년)에 건립된 경주남산신성비 제3비에는 吉士로 표현되었다. 비록 일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568년 이후 길사를 가리키는 표현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석문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목간의 吉士라는 표현은 568년 이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吉士 다음에 가운데 점(·)이 있다. 목간 전체 내용이 끝난다는 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D면의 내용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만일 전자라면 목간 면의 순서를 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5. 임001(2017) 목간

임001(2017) 목간은 사면 목간으로 A, B, C, 3개의 면에 글자가 있다. 그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兮刪宋(宗(?))公前別自作(?)□□(파손)
- (B) 米卅斗酒作米四斗并卅四斗瓮□(此)□(파손)
- (C) 公取□開在之
- (D) 글자 없음

37) “옛날 어진 사람으로 庾信이라 한 이가 있으니 어찌 그렇게 이름하지 아니하라?” 하고 드디어 이름을 庾信이라 하였다(『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38) 주보돈, 2009, 「김춘추의 정치지향과 유학」, 『국왕, 의례, 정치』,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pp.33~43.

39)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年 4月.

40)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年 7月.

41) 『三國史記』 卷38 雜志7 職官 上.

그 가운데 C면은 다른 면에 비해 글자가 분명하다. 이 부분에는 米, 酒作米⁴²⁾ 등의 쌀과 관련된 내용, 숫자와 부피를 나타내는 斗,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용기(瓮)로 추정되는 글자가 등장한다. 아랫부분이 파손되어 목간의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쌀과 관련된 문서 목간 또는 꼬리표 목간으로 추정된다.



그림 27. 임011 목간의 '酒
作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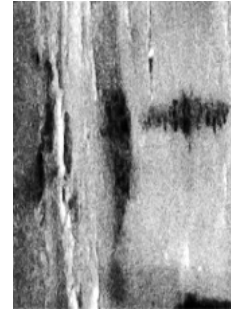


그림 28. 임011 목간의 '斗'

6. 임071(2017) 목간

임071(2017) 목간은 양면 꼬리표 목간으로 A면에만 글자가 있다. 그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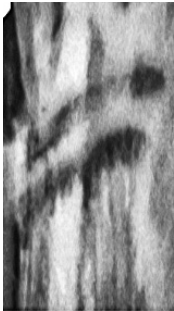


그림 29. 임071(2017)
목간의 기호



그림 30. 안압지 29번 목간
의 기호

(A) 舍尸麻口⁴³⁾ 舍一鷄得鷄口受 斗

(B) 글자 없음

목간에는 지명으로 여겨지는 글자와 동물로 추정되는 글자 그리고 수량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면 아래에 '斗' 형태의 글자가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은 안압지 출토 29번 목간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특정 물품을 가리킨다면,⁴⁴⁾ '斗'도 비슷한 종류의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

7. 임098(2017) 목간

임098(2017) 목간은 사면 꼬리표 목간으로, 임071 목간과 마찬가지로 A면에만 글자가 있다. 그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安豆三斗大刀八中刀一

이 목간에는 安豆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綠豆의 다른 이름을 安豆라고

42) 끓여 입기에 따라서 酒作과 米를 나눌 수 있다.

43) 村일 가능성 있음.

44) 어떤 종류의 毛皮를 가리키는 신라시대 俗字로 보는 견해가 있다(尹善泰, 1997, 『正倉院 所藏「佐波理加盤付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 74, pp.318~325;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新羅 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p.88).

했다. 한편 『大漢和辭典』에는 녹두를 豌豆의 俗稱이라하여⁴⁵⁾ 대조를 이룬다. 이 밖에 大刀와 中刀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刀의 의미 그대로 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두에서 부피를 의미하는 ‘되’의 의미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쪽이더라도 이 목간이 물품의 꼬리표 역할을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림 31. 임098(2017) 목간의 ‘安豆’



그림 32. 임098(2017) 목간의 ‘대도(大刀)’



그림 33. 임098(2017) 목간의 ‘중도(中刀)’

IV. 맺음말

지금까지 새롭게 출토된 경주 월성 해자 목간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자료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임069(2016) 목간의 丙午年, 임418(2016) 목간의 典中大等の 경우, 전자는 완전한 형태의 干支라는 점, 후자는 문헌이나 금석문 등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職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干支는 월성 해자 목간의 제작 시점을 밝히는 실마리가 되고, 새로운 직명은 2차 사료인 문헌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번 월성 해자 조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석문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 다수 나타났다. 즉 임069(2016) 목간의 功, 繁, 一伐, 임392(2016) 목간의 小舍, 小鳥, 임418(2016) 목간의 吉士 등이 있다. 이 표현들은 6세기에 세워진 신라 금석문에 보이며, 특히 관등은 그 표기법의 변화가 마무리된 시점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목간은 6세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금석문이나 문헌에서 등장하는 자료에서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살필 수 있었던 단서가 목간에 서도 발견되었다. 임392(2016) 목간의 文人和 周公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금석문, 목간, 문헌 자료가 1차나 2차 사료 등으로 구분되고 그 성격도 다르지만, 6세기 무렵 신라에서 유학이 점차 확산되어 가던 경향이 이들 자료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롭게 출토된 목간은 과제도 남겼다. 임418(2016) 목간의 典中大等과 임098(2017) 목간의 安豆, 刀는 그 의미가 불확실하다. 다만 典中大等は 12호 목간에 나오는 典太等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른 자료나 향후 출토될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목간은 고고학적

45) 諸橋轍次, 1986, 『大漢和辭典』3 修訂版, p.921.

조사 결과 발견된 유물이면서, 문헌 사료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월성 해자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목간 연구의 조화를 통해 월성 및 신라 왕경의 실제 및 변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18. 1. 31.

심사개시일: 2018. 3. 2.

심사완료일: 2018. 4. 2.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기』, 『일본서기』

2. 단행본 및 논문

國立慶州文化財硏究, 2006, 『月城垓子 發掘調査 報告書Ⅱ -고찰-』,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譯主 韓國古代金石文』2 신라1·가야편,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諸橋轍次, 1986, 『大漢和辭典』3 修訂版.

박대재, 2007, 『三國史記』都彌傳의 世界 -2세기 백제사회의 계층분화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27.

尹善泰, 1997, 「正倉院 所藏「佐波理加 盤付屬文書」의 新考察」, 『國史館論叢』74.

尹善泰,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新羅 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주보돈, 2009, 「김춘추의 정치지향과 유학」, 『국왕, 의례, 정치』,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홍기승, 2013,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목간과 문자』10.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New wooden tablets in Wolseong Moat

Jeon, Kyung-hyo

Fifty-seven wooden tablets were excavated through the excavation of the Wolseong moat in Gyeongju, which began in December 2015. Among them, there were seven items with letters. In these, many new expressions such as the name of the office or the author of the document appeared, including clues to estimate the time of production. In addition, many expressions were used in the existing epigraphy. Especially, the expression of office grade means that the time of the change is close to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se wooden tablets, which proves that it is right to view it from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These points mean that the article can tell a new fact that the literature resource can not explain. On the other hand, the newly excavated pieces left the task together. The name of the official name that appeared this time is similar to the name of the former official name,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mes. In addition, it is a relic discovered through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character data on the other hand. Theref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requires a combination of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ies.

▶ Key words: 6th century, Silla(新羅), Wolseong moat(月城 垓子), Wooden tablets(木簡), Epigraphy(金石文)